

광주, 일자리·경제에 역점...전남, 농업·관광에 초점

6·13지방선거 D-6 /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공약 분석해보니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북미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대형 이슈가 많고,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일부 선거구에서는 유권자의 무관심이 유독 심화하고 있다.

향후 4년간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일자리·경제' 한목소리**
광주시장 후보들은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윤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등 새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전기 자동차·4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월 20만원 농민기본수당도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고용을 늘리고, 3만개의 노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는 청년일자리 위해 창업특구를 조성하고, 벤처타운도 세우겠다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도 발표했다.

나경채 정의당 후보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상속'을 하는 이색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학자금, 자기계발, 창업비용, 전세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민호 민중당 후보는 월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청년의 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전남지사 후보 '농업·관광' 강조**
전남도를 이끌게 될 전남지사 후보들은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고,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농업, 수산업 등을 아우르는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지역별 최적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해 6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매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농·생명 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단지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또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제자산업지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 광주시장 후보 5대 공약

- 이윤섭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만들기
 - 문화수도 '광주컬처 유토피아' 만들기
 - 맞춤형 출산보육지원책 추진
 -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장애인정책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 미래 신산업 육성

- 전덕영 바른미래당**
- 미래친환경자동차산업 및 4차산업 선도도시 육성
 - 중소기업성장공인 활성화 및 청년 창업특구 조성
 - 어르신과 여성아이들이 행복한 광주
 - 무등산-광주천-영산강의 생태벨트 구축
 - 광주정신의 세계화

- 나경채 정의당**
-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 노동조합 조직률 20%달성
 - 성평등 화장실 도입
 -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및 최저임금 1만원 시대
 - 미세먼지와 열대야 없는 광주

- 윤민호 민중당**
-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자치 실현
 - 청년의 내일이 아닌 오늘을 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식량 주권과 통일농업 실현
 - 상생의 지역경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만들기
 - 보편적 복지 확대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 전남지사 후보 5대 공약

-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 해경제2정비장 유치 및 수리 조성 특화산단 조성
 -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제거 및 예방 시스템 구축
 - 6000만 관광객 유치 위한 전남관광공사 설립

- 박매호 바른미래당**
- 농생명 치유복합단지 조성 및 동물복지형 친환경 단지 조성
 - 노인 실버산업 지원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 미래산업전도지역 지정
 - 동부권에 제2행정청 설치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민영삼 민주평화당**
- 전남발전을 위한 협치와 연정
 -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
 - 목포-부안간 남해안 고속철도 등 soc 기반 구축
 - 관광객 1억명 시대 개척

- 노형태 정의당**
- 노인기본소득 최대 20만원 지급
 -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및 노후어선수리·건조 지원
 -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트라이앵글 구축
 - 청년고용합당제 5%

- 이성수 민중당**
-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 지급
 - 노동하기 좋은 전남을 위한 전남
 - 통일경제특구 추진
 - 청년의무고용제 5%실현
 - 국립보육시설 50% 확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63회 현충일인 6월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아 6.25 당시 전사한 김기억 육군 중사의 묘지를 시작으로 무연고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무연고 묘지는 가족이 없는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묘소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우선 발굴"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잠전용사들의 유해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분들의 삶이 짧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하며, 우리 후손이 선대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지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온도를 보였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민주당과 평화당은 평화에 의미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에 방점을 찍은 논평을 내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28) 선거

"국민의 정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국민의 정서에 순(順)하면 성공하고, 역(逆)하면 실패한다" 링컨의 말이다. 링컨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자는 망한다"는 명심보감 속 맹자의 말을 알고 있었을까? 원전의 원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하늘이 따른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이 따

선거권의 역사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한표

로 없을 것 같다.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외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 이번 지방 선거는 감감이 선거에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또한 네거티브에 묻혔다는 우려가 가득하다. 나 역시 나의 한 표가 그리지 의미 없겠다는 안이한 판단에 며칠 전 우편으로 도착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한켠에 두었었는데, 오늘 아침 마음을 다잡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성별, 재산에 관계 없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까닭에 선거권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최초로 의회가 생겼던 영국을 비롯해서 선진

민주주의국가라 할 미국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는 역사를 떠올리면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새삼 소중하다는 자각이 든다. 미국의 조지 칼렙 빙엄(1811-1879)의 '자치주 선거' (1851-1852년작)는 1850년 주의원 선거 장면을 풍속화로 그린 작품이다. 투표장 앞에는 술자리 한판이 펼쳐져 있고, 이미 거나하게 취한 취객은 의자에 앉아 모자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정중히 모자에 손을 얹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선거조기에는 어디랄 것 없이 유권자에게 뇌물



조지 칼렙 빙엄 작 '자치주 선거'

을 주고 표심을 얻거나 향응을 베풀어서 환심을 샀던 모양이다. 작가는 미국 서부 출신으로 미주리강을 배경으로 서부개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삶을 밝은 색채로 그려왔으며, 후일 정치계에 입문하여 미주리주에서 주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